

## Grace & the Testing for Envy in Egypt 은혜와 애굽에서 질투심을 시험하다 (창 43 장)

### The Subtle Sin of Envy

The catalyst for the sin was the recognition of one brother over another.....The envy soon followed to bring a murderous intent. That was the scene that lead to Cain's murder of Abel. That same sin had also infected Joseph's brothers against him as a 17 year old. That same sin affects all of us to some degree....

It can be so subtle that we may not realise or even think that we have it.....Until the situation comes where the Lord reveals it. Someone prospers ..... receives honour or succeeds to a greater degree than we ourselves might have ... & we feel unsettled....start to compare ourselves .... resentment builds..... American author & theologian, Cornelius Plantinga Jr, "envy is a nastier sin than mere covetousness. What an envier wants is not, first of all, what another has; what an envier wants is for another not to have it...an envier resents not only somebody else's blessing but also the one who has been blessed.....what the envier wants is to spoil something —or someone."

Donald Whitney, "Can you pray for the ministry of others to prosper when it would cast yours in the shadows?" The Lord's purpose is to point us again to Christ as we consider envy.....the envy against Joseph that he tests his brothers about in Egypt ... the envy in us

We left the end of chapter 42 with Simeon the second eldest detained in Egypt as a bond...while the brothers returned with grain & the money in their sacks to Jacob back in Canaan. Simeon's release would be conditional on the brothers returning with his younger brother, Benjamin. And so, the next chapter begins.

### 미묘한 죄인 질투심

이 죄의 시작점은, 한 형제가 다른 형제보다 더 인정받게 되므로 시작 되었습니다...이는 곧 다른 형제의 질투를 유발했고, 살의까지 불러일으키고, 결국 가인은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와 비슷한 죄가, 요셉이 17 세였을 때, 요셉의 형제들을 감역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죄는 너무 미묘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드러내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형통함 가운데, 나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룰 때, 우리는 불안해 하고, 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원한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Cornelius Plantinga Jr**, 라는 분은 질투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 합니다. *"질투심은 단순한 탐욕보다 더 비열한 죄이다. 질투하는 사람이 먼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같은 무언가가 아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축복뿐만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도 원망한다. 질투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누군가를 망치는 것이다."*

Donald Whitney 는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의 당신에게 그림자를 드리울 때, 당신은 그 사역의 번영을 위해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구절의 목적은, 질투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그리스도에게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42 장을 통해,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애굽 감옥에 잡혀 있는 동안, 다른 형제들은 곡식과 그 안에 있던 돈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감을 보았고. 시므온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려고,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 땅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 Sovereign Grace: Israel's Humility & the Rise of Judah (1-14)

v1, 'Now the famine was severe in the land. And when they had eaten the grain that they had brought from Egypt, their father said to them, "Go again, buy us a little food."

As the famine wore on... the situation was becoming more desperate.

It's interesting that with Simeon in prison in Egypt...that the first thing Jacob says isn't "go back and redeem your brother," but go back & buy a bit more food.

From what the oldest son, Reuben had already told Jacob on that first return journey, he knew that the redemption of Simeon would demand the handing over of Benjamin. That was not something Jacob actively wanted to face. So it was easier to command them to buy a 'little more food' ... as if a simple trade would work with the passing of time. Jacob was in denial of the cost of obtaining more food...yet he couldn't deny the overwhelmingly compelling driving force to take his sons back to Egypt...their survival in the severe famine.

It would now fall to Judah — the fourth eldest after Reuben, Simeon & Levi — to show leadership...& in that we see the beginnings of his rise to prominence among his brothers & here also before his father...  
v3, 'But Judah said to him, "The man solemnly warned us, saying, 'You shall not see my face unless your brother is with you.' If you will send our brother with us, we will go down and buy you food. But if you will not send him, we will not go down, for the man said to us, 'You shall not see my face, unless your brother is with you.'"

To reinforce the truth in the face of Israel's denial ...Judah repeats the words of Joseph — 2IC in Egypt. To have obeyed their father while denying the situation as Israel was doing...would not have been to honour him. Judah showed firm wisdom & integrity in his godly resistance.

### 주권적 은혜: 이스라엘의 겸손함과 유다의 강단.

1~2 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기근이 계속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여기서 야곱의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 아들인 시므온이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 야곱은 "가서 네 형제를 데려오거라" 라는 말 대신,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 말합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야곱에게 이미 말하기를, 시므온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을 잃은 야곱은, 베냐민을 이방인 땅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굳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더라도 곡식을 사올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말합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리더쉽을 발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5 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유다는 요셉이 한 말을 다시 반복하며, 진실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현실을 부인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는 그 지혜와 진실함 가운데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저항합니다.

This marks him out as the beginnings of a true leader...But Israel wouldn't surrender Benjamin lightly...v6, '(Israel) said, "Why did you treat me so badly as to tell the man that you had another brother?" They replied, "The man questioned us carefully about ourselves and our kindred, saying, 'Is your father still alive? Do you have another brother?' What we told him was in answer to these questions. Could we in any way know that he would say, 'Bring your brother down'?"

V8, 'And Judah said to Israel his father, "Send the boy with me, and we will arise and go, that we may live and not die, both we and you and also our little ones. I will be a pledge of his safety. From my hand you shall require him. If I do not bring him back to you and set him before you, then let me bear the blame forever. If we had not delayed, we would have returned twice."

Judah again rising to lead simply tells old Israel the two choices he has...hand him to his care so that they would all live ...or else die. In saying to Israel that if he failed to return Benjamin, that he would bear the blame forever...Godly leadership means sizing up a situation...& being willing to bear the responsibility even if it fails.

It's not easy...the default is to 'play it safe'... to remain silent & be passive instead of seizing an opportunity to lead others. The Lord calls each of us again & again...to hand over our lives — including our sense of identity to Him...to know that we aren't to live for the praise of others...but for His glory.

Judah was beginning to distinguished himself...he'd come a long way from chapter 38 in his repentant state after the incident with Tamar. In light of Judah's leadership, Israel also began to turn....

이를 통해 유다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그러나 이스라엘은 쉽게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6~7 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8~10 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두 가지 선택권에 대해 말합니다... 베냐민을 유다의 손에 맡겨 애굽으로 갔다 오게 하던가, 아니면 다 굶어 죽던가. 그리고 유다는 더 나아가 말하기를, 만약 베냐민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지 못한다 한다면, 자기 자신이 모든 비난을 평생 질 것이라 말합니다...여기서 보게 되는 경건한 리더십은 상황을 가능하고 실패하더라도 기꺼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리더십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이끌기보다는, 안전함 가운데 침묵하고 소극적으로 있기를 더 선호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시기를, 우리의 삶을 바쳐, 사람의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유다는 두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그리고 유다의 이런 리더십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v11, 'Then their father Israel said to them, "If it must be so, then do this: take some of the choice fruits of the land in your bags, and carry a present down to the man, a little balm and a little honey, gum, myrrh, pistachio nuts, and almonds. Take double the money with you. Carry back with you the money that was returned in the mouth of your sacks. Perhaps it was an oversight. Take also your brother, and arise, go again to the man.'

With Judah's firm word...Israel finally turned to take the only course of action to preserve their lives...To give them maximum occasion for success...he packed them off with an assortment of gifts...The Lord in His grace — even in the severe drought — had still provided for the family with food of their own. Now, having been brought to the end of himself... with a change of heart, Israel says, V14, 'May God Almighty grant you mercy before the man, and may he send back your other brother and Benjamin.'

It was right back in chapter 35, before the birth of Benjamin where God appeared to Jacob again & revealed himself as 'God Almighty' the Hebrew, 'El-Shaddai' — God the destroyer — also understood as God the One with absolute power. Israel repeats that titl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n...

It took him to be brought to his knees to the point of surrendering Benjamin, to remember that God was almighty. So Israel pronounces a prayer of blessing — a benediction...He also shows that he has handed his children over to the Almighty v14b, '(And) as for me, if I am bereaved of my children, I am bereaved.'

11~13 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송아이나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유다의 확고한 설득에, 이스라엘은 마음을 바꿔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을 택합니다...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야곱은 여러 종류의 선물을 챙겨 가져가게 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 이런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야곱은 선물을 챙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14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급할 때, 이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하며 이는 파괴하다, 압도하다 라는 의미와 전능한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35 장에서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이 단어로 언급한 이후, 이 구절에서 두 번째로 언급됩니다.

그는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무릎을 꿇음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축도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14 절 후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 Testing for Envy in Egypt (15-34)

### • A Fearful Meeting with Mercy (15-25)

V15, 'So the men took this present, and they took double the money with them, and Benjamin. They arose and went down to Egypt and stood before Joseph.

When Joseph saw Benjamin with them, he said to the steward of his house, "Bring the men into the house, and slaughter an animal and make ready, for the men are to dine with me at noon." The man did as Joseph told him and brought the men to Joseph's house.'

From v18-23 we see the brothers frightened in being brought to Joseph's house.

It would be the first test from Joseph of their integrity concerning the money that he had returned to their sacks...would they be high handed & pretend that nothing had happened. They couldn't do that — for the way Joseph had set it up meant that all they could do out of fear, was to acknowledge what they'd found & fall on the mercy by confessing what had occurred to the steward...& to offer recompense in saying v21c, 'we have brought it again with us, and we have brought other money down with us to buy food. We do not know who put the money in our sacks.' He replied, "Peace to you, do not be afraid. Your God and the God of your father has put treasure in your sacks for you. I received your money." Then he brought Simeon out to them.'

Joseph had flushed them out...by their fearful response they nonetheless showed integrity...that began back in Canaan when they packed double the money. In the steward, they found the mercy that without which they would have perished. And with Benjamin's presence & the passing of the first test of their integrity...Simeon was freed.

Provisions from the steward under Joseph's direction continues — with water to drink & wash — food for their donkeys.

### 애굽에서 시기심을 시험하다.

15~17 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들이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23 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을 때, 큰 겁에 질리게 됩니다. 이는 전에 자루에 들어 있던 돈 때문이었으며, 요셉은 그들을 집에 인도하므로 그들의 정직함을 시험해 보려 하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이 자루에 있었음을 모른척할 수도 있었으나,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모든 일을 이실직고합니다.

21 절 후반~23 절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에서 두 배나 되는 돈을 챙겼고, 그들은 모든 일을 고백함으로, 정직함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 이 청지기는 그들에게 긍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베냐민을 데려왔기에, 약속대로 시므온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요셉은 이 청지기를 통해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고, 24 절에서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베풀습니다.

- A Poignant Meeting with Grace (26-34)

At Joseph's arrival they pass on the gift from Israel, & bow in respect of Joseph's office.

v27, 'he enquired about their welfare and said, "Is your father well, the old man of whom you spoke? Is he still alive?" They said, "Your servant our father is well; he is still alive." And they bowed their heads and prostrated themselves. And he lifted up his eyes and saw his brother Benjamin, his mother's son, and said, "Is this your youngest brother, of whom you spoke to me? God be gracious to you, my son!" Then Joseph hurried out, for his compassion grew warm for his brother, and he sought a place to weep. And he entered his chamber and wept there.'

V30 is literally 'his mercies were heated up for his brother.' No wonder...when Joseph was 17...his brother Benjamin would have only been a boy. Here before him stood the young man ~ in his late 20s— his full-blood brother — With the overwhelming emotion.... For the second time in two chapters he leaves to prevent the revelation of his identity. At risk was his ability to test them for envy. If they were to have found out the truth about him ..... h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find out the truth about them!

v31 'Then he washed his face and came out. And controlling himself he said, "Serve the food." They served him by himself, and them by themselves, and the Egyptians who ate with him by themselves, because the Egyptians could not eat with the Hebrews, for that is an abomination to the Egyptians. And they sat before him, the firstborn according to his youth. And the men looked at one another in amazement.' From Reuben to Benjamin ... in chronological order .... the brothers were amazed...but it was all part of Joseph's design to bring them to this point of testing...

- 은혜 가운데 절정에 이르는 만남.

요셉이 집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예물을 요셉에게 주고, 땅에 엎드려 절함으로 예를 표합니다.

27~30 절 “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17 살에 형제들과 떨어지게 되었을 때, 베냐민은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이런 베냐민이 이제는 20 살이 넘는 청년으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요셉은 감정이 복받쳐 오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요셉이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제들에게 드러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면, 형제들의 참된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1 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를 어리둥절하면서 쳐다보았다고 말씀합니다...요셉이 이처럼 행함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시다.

Their first response is positive — primary amazement at their sequential seating rather than any sense of entitlement — showing itself through resentment at being relegated to an unclean table...they were humble ... not thinking they deserved to be treated better. Now for the test about which the whole chapter has been building....v34, 'Portions were taken to them from Joseph's table, but Benjamin's portion was five times as much as any of theirs.' Joseph had lavished grace upon all of them — but he multiplied it x5 upon Benjamin.

Joseph knew for his father — since his loss — that Benjamin had become his favoured son ...that was why Israel had not permitted Benjamin even as a grown man to accompany them on that first journey. And here is the particular test of their envy... Joseph's favouritism to Benjamin at the table.....

Now that they were all once again a long way from their father as Joseph had been 22 years earlier.....how would they react? Joseph was alert for any looks or words of envy that he knew from them.....The final sentence shows that they passed the test...V34b, '(And) they drank and were merry with him.' There wasn't the slightest hint of envy...around the table because of the Lord's sovereign work through humbling them before the lord who held their lives in the palm of his hand

### The Lord who Overcame Envy

God's severe mercy in the famine...through their desperate though divinely inspired dependance on Egypt...had brought their humbling. But even prior to that...God had humbled Judah to bring repentance to make a leader... who would be utterly humbled in Joseph's presence while honouring Israel with Benjamin's care.....the favour upon their youngest brother now brought joy not jealousy.

그들의 첫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상을 따로 차려 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에 불쾌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모였고, 그들의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세팅 가운데 요셉은 자신들의 형제를 다음과 같이 시험합니다. **34 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이 사라진 후에 베냐민을 끔찍하게 아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을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내기 꺼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베냐민에게, 요셉이 특별한 애정을 보였을 때, 과연 다른 형제들은 이전에 요셉을 시기한 것과 같이, 베냐민을 시기하는지 시험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시험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34 절** 후반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주님의 손길 가운데 연단다 하고, 겸손해진 이 형제들에게 그 어떠한 시기도 없었고,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 시기를 이겨낸 주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은, 애굽에 대한 의존을 통해 그들에게 겸손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개케 하심으로 겸손케 하시고, 아버지인 이스라엘을 공경하며, 동생 베냐민을 보살필 줄 아는 리더로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막내동생 베냐민에게 보인 애정은 질투가 아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Joseph was beginning to see that God in His grace had purged the envy from their hearts...Joseph had born the brunt of their evil to make it so that Benjamin was now safe in their presence.

We see the fulfilment in our Lord Jesus in Mark 15:10 — where even Pilate could see that it was out of envy that the chief priests had delivered him up....but that would bring salvation. The evil that lead to Joseph's betrayal was of the same kind against our Lord

Oh for envy not to be present when testing comes.... As for all sin...our ability to conquer can only come by submitting ourselves to the Lord who was betrayed because of it & yet triumphed in overcoming it..... He is the Lord in whose presence we'll one day feast!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제거하셨음을 요셉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큰 악행으로부터 고난 겪었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그들 가운데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10 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이런 그리스도의 고통이 구원을 가져다 줬습니다. 요셉을 배반하게 한 이 악은,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이 시기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배신당하셨으나, 이에 굴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젠가 그분 앞에서 잔치를 베푸실 주님이십니다!